

광주-나주, 에너지 신산업 연계 혁신도시 고도화

강기정 광주시장, 나주시민과의 통합 상생토크
혁신도시·에너지·교통·정주여건 협력 전략 제시
“통합, 나주 위상·주민삶의 질 향상 전환점 될 것”

광주시는 11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나주시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나주시 발전 방안에 대해 나주시민과 소통했다.

이날 상생토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나주시의 역할과 변화 등에 대해

의논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 의지, 정부의 획기적인 특전(인센티브), 특별법 안 특례 등을 설명하고, 통합의 긍정적 방향과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밝혀 현장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 이후 광주와 나주 간 협력전략으로 나주 혁신도시-원도심-광주를 잇는 광역 교통망 강화,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 기능 고도화로 지역 성장 견인, 청년과 연구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생활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협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 특별법 반영, 의료인프라 및 질적 향상, 광주-나주 광역철도 신속 추진 등 광역 철도·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 통합 이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의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나주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교육·연구 기능이 집적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통합은 나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장에서 나은 의견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통합 전략을 설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권역별·분야별 의견 수렴을 지속해 통합 논의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형 보육정책 추진
전남도, 5303억원 투입

전남도는 11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의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직원 보수교育 위탁 기관 선정 △보수교育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기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의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 감토해 지난해보다 80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 공공책임 강화 △보육환경 안전관리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척우 개선 향상을 위해 총 5303억원을 투입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손잡고 화합 담진하는 민주당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광주사회단체 교육감 단일후보로 정성홍 선출

시민공천단 전자투표·3차례 시민 여론조사 실시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부지장이 이정선 현 교육감에 맞서는 광주 지역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광주지역 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단일후보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위원회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정성홍·김용태·오경미 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시민공천단 전자투표와 3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 합산 결과, 정 전 지부장이 1위를 차지해 공천 후보로 결정됐다.

정 전 지부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번 경선은 승패를 가르는 경쟁을 넘어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교육의 권한과 재정, 인사, 자율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시대에 전남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제도를 통해 정책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선에 참여했던 김용태·오경미 출마 예정자의 행사 불참과 관련해서는 “축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김영남, 광주 서구청장 출사표
민생경제 회복 등 7대 공약 제시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사진)이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서구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경쟁 심화, 행정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인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지금은 현상을 관리하는 행정이 아닌 변화를 이끌고 성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필요한 시기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더 잘사는 더 안전한, 더 행복한 서구’를 기치로 한 7대 핵심 공약에 나섰다.

7대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행정통합을 통한 성장중심지 도약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방 중심 안전도시 구축 △선제적 통합 돌봄 체계 △생활체육과 반려문화 일상화 △주민 참여 기반 책임행정 구현 등이다.

그는 “모든 공약을 AI·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운영 체계 위에서 실행하겠다”며 “교통, 안전, 복지 등 흘러진 데이터를 통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행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 30곳 집중 회복 프로젝트, 양동시장 미식 목적지화, 서창지역의 도농복합 AI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기명 여수시장, 재선 도전

새로운 여수관광 패러다임 제시



정기명 여수시장(사진)이 오는 6·3 지방선거 여수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 했다.

정 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시장이 되어 경제빙하기를 벗어나 부유했던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그 본연의 모습과 명성을 되찾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산단의 신산업으로의 재편 및 정상화’와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위한 ‘글로벌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기여해 화답하고 있고, 전남도도 석유화학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한 만큼 우리 여수시도 그에 맞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화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이 절실히”하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위한 ‘글로벌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일례로 브리지에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과 해상 국도까지 완성되면 여수시는 대양으로 뻗어 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명실상 부한 남해안거점도시로 자리잡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관광레저도시로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gwangnam.co.kr

“해상케이블카로 관광도시 준비”

박홍률 전 시장, 목포시장 재도전



박홍률 전 목포시장(사진)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목포시장에 도전한다.

박 전 시장은 11일 오전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반도 통합과 AI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 건설, 제2의 개항장을 완성하겠다”며 목포시장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30년 시민 속원인 목포해상케이블카를 만들어 관광도시 100년을 준비하고, 개항 100년만에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해 목포의 위상을 드높였다”면서 “1000억원대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해 저장, 가공, 유통, 수출로 미래 먹거리 토대를 만들었다”고 민선 6기와 8기의 치적을 흥보했다. 이어 “마지막 열정으로 ‘목포발전, 과거 3대 항의 영’에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민선 9기는 시민 모두가 동참해 제2의 개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3월27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에서 내려와 오랜 기간 시정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피선거권 제약을 받지 않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해결사”

김보미 군의원, 강진군수 출마



김보미 회장은 이번 의대 설립 확정으로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라는 오명을 벗고 도민의 생명권을 스스로 지키는 ‘의료 주권’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포했다. 또한 통합대학이 서남권의 도서 지역 의료와 동부권의 산업 의료를 아우르는 ‘지역 완결적 의료 모델’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면, 총동문회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일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2028년 조기 개교’를 강력히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고통받는 도민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2028년 조기 개교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낸 모교 송하철 총장과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김 의원은 “군민을 더 잘 살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군수의 존재 이유”라며 “강진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유능한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여전히 종이 서류와 관행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스스로를 ‘강진 영업사원 1호’로 규정하며 강력한 세일즈 행정을 예고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거론되는 20조원 규모 인센티브 가운데 강진 빛을 최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봇 능기계 구독 시스템 및 AI 능력 시범단지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체류 인구를 늘리고, 첨단 농업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행정 혁신 방안으로는 ‘강진365’ 시스템 도입을 내걸었다. 휴대전화로 군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고, 군민이 직접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